

2025

Vol. 133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1·12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hdi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화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기획·홍보
사업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만들어갈 내일

04 스페셜 리포트

-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14 한센 리포트

-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현장점검
- 한센인 합동결혼식
- 낙산마을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산성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한센인 구술 기록화
- 대중매체 모니터링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34 지부는 지금

- 서울·중부지부
- 울산·경남지부
- 경기지부

39 한국IDEA협회

42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46 국립소록도병원

한센공감

49 함께하는 한센

- 가버린 세월_신재문(영락마을 대표)
- 팔순, 추억 일기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한센이모저모

52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6 정보알리미

- 한여름 밤 맥주 한 잔이 부른
- 급성 통증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3권 제6호 통권 제133호 발행일 2025년 11·12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만들어갈 내일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계절을 보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센 가족들은 여러 도전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가 있었기에, 총연합회 또한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센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센인의 복지 향상과 화합, 차별과 편견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센 가족과 국민이 소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한센사업의 효율성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질적·양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센인 복지 서비스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도 올해의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한센인의 생애사를 직접 기록하여, 한센병의 발병과 치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를 생생히 담았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자료를 넘어,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삶과 인권을 이

더불어, 한센인 합동결혼식을 통해 네 쌍의 아름다운 부부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체 속에서 더욱 빛나며,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부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표현으로 인한 한센병(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이 쌓여 사회의 시선이 더욱 따뜻하고 공정하게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여러분,

총연합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고, 행복이 자리하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걸어 가겠습니다. 긴 세월을 견디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는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 믿음 위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과 평안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편견해소를 위한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개최



총연합회는 12월 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안철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KBS, MBC, SBS, 한겨레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후원했다.

한센인 인권과 복지 향상, 한센인의 화합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한센인 가족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주요 인사와 정부·관계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은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안 마련과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김태호 의원에게 돌아갔다. 부문별 수상자는 ▲복지부문 박은희 김해시 시의원 ▲언론부문 이해현 대전 MBC 취재기자 ▲문화부문 조안영 국립소록도병원 외과장 ▲의료부문 김의정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부장 ▲봉사부문 이명훈 주훈 이알씨 대표이다. 또한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은 한국한센총연합회 김정남 후원회장이 수상했다.

한센병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이미 치료할 수 있고 감염성도 매우 낮은 질환이지만,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 국민의 52%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한센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한센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센인의 복지 향상과 화합,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센 가족과 국민이 소통하며 사회통합을 이뤄내고, 한센인들의 사회·경제적 재활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센인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 메시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이번 행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한센인이 사회의 시선과 차별의 서러움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한센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차원에서 한센인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를 확인하고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총연합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센병에 대한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

”

2025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및 부문별 수상

‘2025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은 오랜 시간 한센인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등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김태호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왼쪽부터 이해현 기자, 조안영 외과장, 이길용 회장, 김의정 부장, 이명훈 대표

한센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복지부문 박은희 김해시 시의원 ▲언론부문 이해현 대전 MBC 취재기자 ▲문화부문 조안영 국립소록도병원 외과장 ▲의료부문 김의정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부장 ▲봉사부문 이명훈 주훈이알씨 대표에게 수여되었으며,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은 한국한센총연합회 김정남 후원회장에게 수여되었다.

수상자 주요 공적

특별상



김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남 양산시울)

[공적내용]

경남지역 정착마을 한센인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시간 한센인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 온 바,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함

복지부문



박은희 시의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공적내용]

한센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한센인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크게 이바지함

복지부문



이혜현 취재기자
(대전MBC 보도국)

[공적내용]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통해 한센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에 이바지함

문화부문



조안영 외과장
(국립소록도병원)

[공적내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소록도의 역사성과 한센병 환자의 소외·차별 문제를 조명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간하여 한센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이바지함

의료부문



김의정 부장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부설의원)

[공적내용]

한센병 관리 및 의료·복지사업 등 한센병 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한센병 관리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봉사부문



이명훈 대표
(주훈이알씨)

[공적내용]

20여 년간 청원마을 한센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수상자 소감 한마디!



[언론부문 이해현 기자]

정착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전체에 감도는 고요함을 느꼈고, 그것이 사회적 시선에서 비로워진 침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착마을을 찾을 때마다 한센 어르신들께서 마음 편히 말꽃을 피워서 그늘을 걷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화부문 조안영 외과장]

의사로서 한센병 치료에 더욱 전념하고, 한센인분들과의 소중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센 관련 문학작품을 만들어 가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의료부문 김의정 부장]

한센복지협회에서 20대에 첫발을 디딘 뒤 어느덧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부문 이명훈 대표]

한센인분들을 위해 봉사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센인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행사지원금 현황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회장	이길용	2,000,000	성광마을	-	100,000	성생마을	-	2,000,000
고문	정상권	1,000,000	천성마을	-	200,000	(재)티엘엠복지선교	-	500,000
고문	김정명	500,000	천성마을	김매수	200,000	남양주녹촌지구 도시개발	-	500,000
이사	김종열	200,000	前경기지부장	이주상	100,000	낙산마을	최정순	100,000
이사	정기호	300,000	성심마을 이사장	임진수	200,000	신락마을	-	100,000
이사	박행남	300,000	장자마을	최종국	1,000,000	상신마을	-	100,000
이사	정서기	300,000	경인마을	-	300,000	삼청마을	채용태	100,000
이사	최정기	200,000	-	강창모	100,000	익산마을	김종윤	200,000
이사	박정수	200,000	-	정은미	100,000	금호마을	-	100,000
이사	홍완근	300,000	현애마을	허인선	100,000	소아마을	이상용	200,000
감사	김 용	300,000	영호마을	서금순	100,000	산성마을	-	100,000
감사	최종현	200,000	칠곡마을	-	500,000	거창마을	-	100,000
후원회장	김정남	2,000,000	신촌마을	이인식	100,000	신촌마을	김영훈	100,000
서울지부장	박우택	200,000	광명마을	-	100,000	양지마을	-	100,000
부산지부장	정경욱	200,000	협동마을	-	300,000	청원마을	장경선	200,000
인천지부장	-	300,000	구평마을	김인수	300,000	향촌마을	김형모	300,000
경기지부장	최광현	500,000	신암마을	-	200,000	향촌마을	-	300,000
전남지부장	지재운	200,000	신흥마을	-	200,000	한성장로회	-	500,000
전북지부장	김필중	200,000	성생마을	임광묵	200,000	금오마을	홍성수	100,000
경북지부장	김창일	300,000	청천마을	-	300,000	경호마을	이상구	100,000
경남지부장	이상용	200,000	영락마을	-	300,000	성애마을	김기준	100,000
청원마을	이명훈	200,000	화도농협협동조합	-	500,000	영신마을	이덕구	100,000
성진마을	-	100,000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	500,000	영신마을	-	100,000
용호마을	박현석	300,000	한국한센복지협회	-	1,000,000	신생마을	-	300,000
재생마을	정복열	100,000	현인새마을추진 위원회	-	300,000	고운마을	강영숙	200,000
성신마을	김진국	100,000	(재)대구애락원	-	1,000,000	비룡마을	-	200,000
익산마을	-	1,000,000	방주교회	-	1,000,000	희망마을	-	100,000
덕촌마을	-	300,000	소아마을	-	200,000	정애마을	-	100,000
여명마을	안외찬	300,000	신촌교회	-	300,000	예수원교회	윤화현	300,000
신광마을	-	100,000	도성마을	-	100,000	-	무 명	200,000
금오마을	-	500,000	염광마을	-	500,000			

※ 위 명단은 무순이며, 후원자 또는 금액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총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인권·복지 향상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 2025년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 -



총 연합회는 11월 28일 이룸센터에서 2025년에 진행될 한센사업과 관련하

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난 50년 이상 한센인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센인과 비한센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외부평가 회의에서는 2025년 한해 동안 총연합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한센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센시설 입소 및 소록도 입소 홍보’, ‘시설 한센인 및 재가 한센인에 대한 사업 참여 방안’, ‘대국민 대상 홍보 사업의 확대 방안’, ‘한센인 2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방향’, ‘한센인(병) 관련 역사 보존 방안’ 등 한센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센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센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의 추진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념관 및 추모관 등의 건립이 필요하고 올해 진행된 구술기록화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한센인 당사자 뿐 아니라 한센인2세에 대한 국가 한센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한센인2세의 인권 회복을 위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총연합회는 정부·시민단체·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노력하여 풀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외부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한센인 뿐만 아니라 한센인 2세에 대한 인권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갈 것이며, 편견과 차별이 없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

2025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이 11월 19일 질병관리청 박수진 선임연구원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물품 비치 현황, 기록물 관리 수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총연합회 실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센인 부부 4쌍, 사랑의 결실·희망의 예식



11월 4일 더모임(서울시 동대문구)에서 ‘2025 한센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신부에게는 이동, 메이크업, 의상, 예식장 대여료, 결혼사진과 앨범, 1박 호텔 숙박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양한 선물이 전달되었으며, 이길용 회장을 비롯해 총연합회 임직원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축을 밝히는 한센인 4쌍 부부를 축하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2012년 최초 진행)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곤경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한센인 가족의 욕구 부응과 사회적 복지 지원을 반영하고, 한센인의 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지속적으로 합동결혼식을 통해 많은 가정에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회가 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결혼식을 마친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설레었다.”라며 “이렇게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 부부의 욕구 부응과 사회적 복지 수용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따뜻한 배움으로 일상에 기쁨을 더하다

- 낙산마을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총연합회는 11월 24일 낙산마을(대표 최정순)에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종강했다.

낙산마을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은 16회기로 나뉘어 노인의 건강을 돕는 건강증진 교육,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정서적 만족을 더하는 행복 증진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마을 한센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건강증진 교육 덕분에 함께 운동하며 몸을 움직이니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다양한 교육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었고, 스마트폰 교육도 어렵고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따라 해보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앞으로도 한센인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이 먼저! 산성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총연합회는 11월 26일 산성마을(대표 이선규)에서 한센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 교통 법규, 사고 예방 요령,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센인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고려해,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과 함께 진행된 전동보장구 안전 점검에서는 전문가가 산성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결과를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비는 바로 조치해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전동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산성마을 대표는 “전동보장구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한센인의 생애사

- 한센인 구술 기록화 -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삶을 통해 한센인(병)에 대한 역사와 개인의 생애사를 조명하는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구술 작업은 연세대학교 김영희 교수팀이 맡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2월에는 기록화된 구술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동안 한센인의 생애사는 공식 기록에서 소외됐고, 고령화로 인해 더 늦기 전에 생생한 구술 기록을 남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한센인이 직접 구술한 자신의 생애사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한센인으로서의 경험(발병, 입원, 치료, 차별과 편견, 피해 사건 등)과 개인의 삶(가정사, 인간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술 기록화에 참여한 6명의 한센인은 생활시설 거주 3명, 정착마을 1명, 재가 2명으로 다양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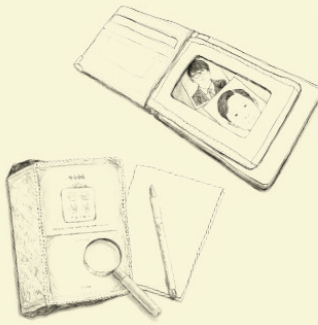
센병 발병 이후 겪은 삶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했다. 이는 기존에 소록도 한센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구술집과 달리,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을 폭 넓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책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한센인의 생애 기록을 통해 우리는 차별과 고난을 넘어선 삶의 고귀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 책은 한센인 개인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 차별과 아픔 속에서도 삶을 일궈 오고,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준 구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총연합회는 과거의 차별과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센인의 구술 기억 I

김영희 김시연 제하나 김지원 씀



한국한센총연합회

큰아들네는 가 보도 몬 했고……. 거-는 뭐,
집에 할마이가 그때 닭을 백일 때인데,
많이 백일 때인데…….
거계 닭을 백이다 보면 닭똥 냄새가 옷에 배어 가지고
아무리 말아야, 빨래를 널어 가지고 말랴-도,
입고 가도 가면 '아이고…….'
며느리, 큰 며느리가 그래.
'어머니, 어머니 오면 막 옷에 막 냄새가 막 난다'고,
'오지 마라'고 그러더라 카더라고.

기다윗 씨 구술 내용 중

한센인의 구술 기억 II

김영희 김시연 제하나 씀

그전에는 우물이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 물 뜨러 가면 물 뜨러 못 오게 해요.
'저 집에 문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가서 물 이어 오고,
밤중에 가서 뭐 같은 거 하고 그래.
못해, 동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도 그- 보내야지,
데리고 못 있는 거여.

이향선 씨 구술 내용 중



한국한센총연합회

‘100% 시정’의 성과 속, ‘인식 개선’의 과제를 확인하다

- 2025년 대중매체 모니터링 결산 -



■ 2025년 한 해, 한센병 차별 용어 사용 117건 확인... 총연합회 요청에 100% 수정 완료

■ 6월(21건) 이어 10월(20건) 재급증... 편견의 사각지대 여전함 시사

■ 12월, 모니터링 5건으로 한 해 마무리... “지속적 관심과 대국민 홍보 사업 절실”

2025년 한 해 동안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용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총연합회의 대중매체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총연합회는 올 한 해 동안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나병’, ‘문○병’ 등 차별적 혐오 표현 총 117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 요청이 100%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차별 용어 근절을 위한 총연합회의 지속적인 확인과 시정 요청을 통해 변화에 동참한 언론사들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린 결과이다. 하지만 6월(21건)에 이어 10월(20건)에 다시 한번 차별 용어 사용이 급증하는 등, 편견이 내포된 용어 사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안겨주기도 한 해였다.

1. 한센병, ‘질병’이 아닌 ‘편견’과 싸우다

〈2025년 언론사의 차별 용어 사용 실태분석〉

(단위: 건)

연번	사용 된 차별 용어	건수
계		127
1	나병	86
2	문○병	18
3	나병환자	14
4	문○○자	2
5	나환자	2
6	나병 수용소	1
7	문○이	1
8	문○이 마을	1
9	나병균	1
10	나병환자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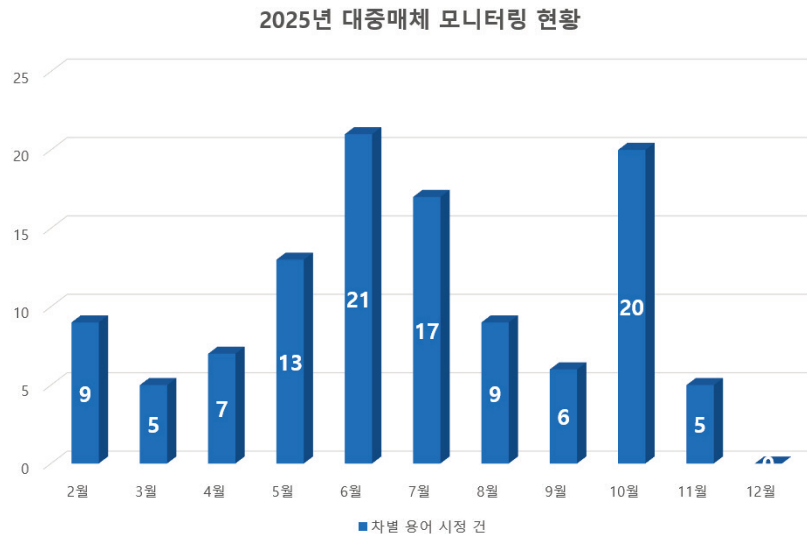
※ 한 기사에 복수의 차별 용어가 사용돼 적발 건수(117건)와 사용 건수(127건)에 차이가 있음

한센병은 ‘나균(한센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매우 낮으며 조기 발견과 치료 시 100%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역시 ‘한센병’을 공식 용어로 권장하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특히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 매체에서는 여전히 ‘문○병’, ‘나병’과 같은 용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용어는 질병 자체의 의학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도구로 작용해 왔다.

단어 하나를 바로잡는 것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중매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정정 요청을 지속해 왔다.

2. 2025년 모니터링 현황: 100% 수정률 속 10월의 ‘이상 급증’



올해 모니터링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단연 ‘100%의 수정 완료율’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확인된 117건의 차별 용어 사용 사례 모두가 총연합회의 요청을 받고 기사 삭제, 용어 수정, 또는 주석(예: 나병(현 한센병)) 추가 등의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언론사들이 한센병 관련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하지만 월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연초 2월 9건 이후 3월 5건, 4월 7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시정 건수는 5월 13건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6월 21건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총연합회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7월 17건, 8월 9건, 9월 6건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듯했다.

3. 차별 용어, 특정 집단 아닌 사회 전반에 만연

그러나 10월, 시정 건수는 20건으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게 급증했다. 상반기 최고치였던 6월의 21건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이는 한센병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사회 저변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의 급증 이후, 11월에는 시정 건수가 5건으로 급감했으며, 모니터링을 결산하는 12월 현재는 5건을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는 10월의 재발에 대한 총연합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건)

월	세속매체	가톨릭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	계
계	86(73.5%)	7(6%)	16(13.7%)	3(2.6%)	5(4.2%)	117(100%)
2월	8	0	1	0	0	9
3월	1	0	4	0	0	5
4월	7	0	0	0	1	7
5월	10	0	1	2	0	13
6월	21	0	0	0	1	21
7월	9	4	3	1	1	17
8월	8	0	1	0	0	9
9월	6	0	0	0	0	6
10월	14	2	3	0	1	20
11월	3	0	2	0	0	5
12월	3	1	0	0	1	5

〈2025년 종교/세속 매체별 모니터링 현황〉

이번 대중매체 모니터링은 차별 용어 사용의 주된 출처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2025년 종교/세속 매체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117건 중 특정 종교와 관련 없는 ‘세속 매체’로 분류된 사례가 86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물론, 이는 국내 전체 매체의 총 수를 대비한 ‘오류 비율’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국내 언론 환경상 세속 매체의 총 수가 종교 매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진정으로 시사하는 바는,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특정 종교 집단의 교리나 배타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뿌리 깊은 무지와 관습적 용어 사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종교 관련 매체 중에서는 ‘기독교’(16건, 13.7%)가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7건, 6%), ‘불교’(3건, 2.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세속 매체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 매체 역시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과 9월에만 해도 국민일보, 광주매일신문, 월간조선, 부산일보, 크리스천투데이 등 다양한 세속 및 종교 매체 전반에서 ‘나병’, ‘문〇병’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가 ‘한센병’으로 수정하거나 주석을 추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10월의 20건 역시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2025년 대중매체 모니터링은 ‘100% 수정’이라는 눈부신 성과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는 냉엄한 현실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었다. 12월 마지막 달까지 발견된 ‘5건’의 사례는 비록 적은 수치일지라도, 우리 사회 내 차별적 시선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따라서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사후 대응’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언론사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총연합회는 각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 사내 보도 용어 가이드라인에 ‘한센병’을 표준 용어로 명시하고 ‘나병’, ‘문〇병’ 등을 금지 용어로 규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00%의 수정 수용률은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사업이 절실하다.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의학 정보와 역사적 사실을 알려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한센병은 오래전부터 완치의 길이 열린 질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인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의 117건이라는 숫자와 100%의 수정률, 그리고 12월의 ‘5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 ‘5건’의 기록이 단순한 통계가 아닌, 편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견고한 초석이자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10월~12월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ABC뉴스	2025. 3. 11.	『신 위의 신』/ 예사롭잖은 인생 행로를 걸어다닌 사람	문○이	문○이 (현재는 ‘한센인’으로 불리며, 문○병은 ‘한센병’으로 불린다) ※주석추가
가톨릭신문	2025. 3. 19.	[당신의 유리알] 인도로 간 이방인(하)	나병	나병*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현재는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성경 내용을 인용 했으므로 주석 추가
뉴데일리	2025. 5. 2.	“탈시설’당한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 ‘동의서 위조’ ‘의료진 권고’ 묵살도		나병 (현 한센병) ※인터뷰 내용이므로 주석 추가
서울신문	2025. 5. 27.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충청·영호남 7개 지자체 뭉쳤다		한센병
매일경제	2025. 7. 13.	유라시아 덮친 병원체, 기원 찾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교과서로 과학뉴스 읽기]	나병, 나병균	한센병, 한센균
천지일보	2025. 9. 22.	“신앙인은 반드시 계시록 성취 확인해야” ... 신천지 여수교회, 말씀 대성회 첫 개최	나병	한센병
대구신문	2025. 9. 24.	[메디컬 프런티어 현장을 찾아서] 대구 네오미피부과, 피부종양·백반증 등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높인다		
오마이뉴스	2025. 9. 29.	중재자의 시선으로 본 세상		
아시아 경제	2025. 10. 2.	28년 전 일본의 절망, 지금 한국의 불안 ...여전히 청년 움직이는 ‘모노노케 히메’ [슬레이트]		
국민일보	2025. 10. 4.	[가정예배 365-10월 4일]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병
국민일보	2025. 10. 6.	[가정예배 365-10월 6일] 옆드리어 감사하니	나병, 나환자	‘나병’ 단어 삭제 / 한센병 환자
뉴스앤조이	2025. 10. 10.	[성령강림절 후 열여덟째 주일] 구원은 변10.807방에서부터	나병	본문 내용 ‘한센병’으로 수정
서울신문	2025. 10. 13.	‘혐오 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한센병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2025. 10. 13.	일상을 축제가 되게	나병	나병(한센병) ※주석추가 / 단어삭제
아주경제	2025. 10. 18.	[중국 화양‘영’화] 1980년대 ‘반동’으로 낙인찍힌 영화 ‘붉은수수밭		한센병
아시아엔	2025. 10. 20.	[김서권 칼럼] 깨끗함을 받으라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주님	문○병, 문○병자	한센병, 한센병 환자
국제신문	2025. 10. 21.	[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72> 초피와 산초		단어 삭제
조선일보	2025. 10. 22.	“이승만 정부 분쇄” 내걸고 1,200명 살해	나병	한센병
크리스천 투데이	2025. 10. 22.	전국목회자선교연합 “연합과 도약으로 복음의 성취 향해”		나병환자(한센병) ※주석 추가
한국기독교공보	2025. 10. 2.	산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한센인
	2025. 10. 30.	“성공 아닌 섬김”의 삶, 서서평 선교사 정신 기리다”	나병환자	한센병 환자
크리스천 투데이	2025. 11. 13..	『호주선교사 노블, 메리, 헬렌, 캐시 맥켄지 - 부산 상애원과 일신기독병원』 출간	나병	한센병
PPSS	2025. 11. 22.	[박세덕 칼럼] 감사 실천의 3단계, 평강이 주장하는 삶, 교회 중심의 말씀 나눔		
국제신문	2025. 11. 23.	총선에서 낙선한 나림, 그 쓰라린 정열과 허망의 기록	나병환자촌	한센인 정착마을
디지털 타임스	2025. 11. 23.	[강현철의 중국萬窓] 성적 페티시즘의 상징 ‘전족’	문○병	한센병
유교신문	2025. 11. 24.	<특집>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에 대하여③		한센병
경북신문	2025. 12. 3.	[김용권의 행복한 삶] 심장과 소금		한센병
시사IN	2025. 12. 6.	동서양을 넘나드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김영민의 연재할 결심]		한센병
가톨릭신문	2025. 12. 10.	[말씀묵상]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나병	*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현재는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 주석 추가
CTS	2025. 12. 15.	2025년 3학기 마지막 토요성품학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김형일 선교사]		나병 (현재 ‘한센병’ 으로 불림) ※ 주석 추가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5. 12. 16. 기준 158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10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29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서울·중부지부, 사랑과 나눔으로 채운 겨울



11월 6일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청원마을(대표 장경선) 내 고물상 ‘주훈이 알씨’의 이명훈 대표와 김은주 사모로부터 김장 배추김치 6통을 후원받아 마을 내 고령 독거 한센인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겨울을 앞두고 김장 준비가 어려운 취약 가구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명훈 대표 부부는 평소에도 청원마을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은 청원마을 장경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후원받은 김치 6통은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전달되었다.

장경선 대표는 “독거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식생활 준비가 부담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큰 힘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치를 전달 받은 어르신들 또한 “홀로 지내다 보니 김장 걱정이 있었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선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백합MFJ라이온스클럽(회장 이선우)에서도 해마다 한센가족을 위한 김장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12월 3일 충광마을(대표 최종현)에 김치 완성품 10kg 35박스과 절임배추 20kg 5박스를 후원했으며, 이 중 5박스는 청원마을에 전달되어 지역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기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울·중부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민간 후원자들과 연계하여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경남지부, 정착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챙김 나들이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 산하 덕촌마을(대표 정서기)에서 11월 1일, 소박하지만 깊은 온정을 담은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힐링나우 봉사단체와 오란다예술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마음 챙김 나들이’는 지역 내 한센인 정착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덕촌마을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 분들이 많다. 문화적 혜택은 거의 TV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웃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김해 지역 봉사자들이 한뜻으로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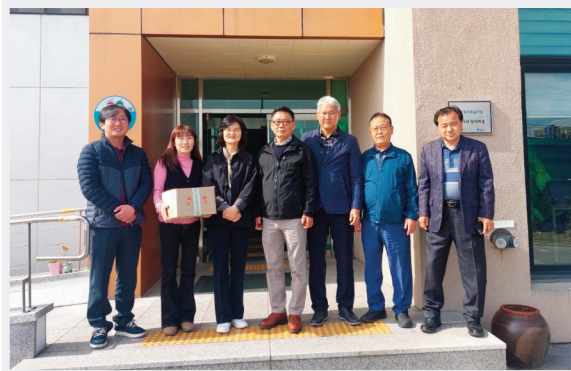
이날 힐링나우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답게 혈압·당뇨 체크와 기본 건강상담, 간단한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현재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참여 봉사자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다가서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오란다예술단은 마술, 트로트 장구,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함께 흥겨운 장단을 맞추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마음 챙김 나들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한센인 정착마을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위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가 이어지길 기대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기지부, 정착마을 복지를 향한 따뜻한 손길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10월 21일,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지부장 최영용)로부터 보청기 1개, 무릎보호대 70개, 지팡이 22개, 실버카 2대를 후원받아 상록마을(대표 이상봉), 장자마을(대표 최종국), 다운마을(대표 김정남), 경성마을(대표 정덕만), 고운마을(대표 강영숙)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지부 최광현 지부장을 비롯해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이점례 부장, 상록마을 이상봉 대표, 장자마을 최종국 대표, 다운마을 김정남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최광현 지부장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후원 물품은 고령화된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각 마을 대표를 통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IDEA협회, 선교보고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11월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 홀에서 ‘2025 선교보고 대회 및 후원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예수장로교회(합동) 총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를 비롯해 후원자와 후원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정상권 회장의 사회로 시작해 공동회장 강대호 장로의 기도, 한국한성장로회연합회장 권성식 장로의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장봉생 총회장은 ‘함께하는 사람’(로마 12:15)을 주제로 설교하며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귀한 사역에 부르셨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채혁 후원회장의 환영사, 라도재 상임고문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오광춘 명예회장, 기독교신문 CTV 태준호 사장, 서울·서북지역장로회연합회 이희근 수석부회장, 전국원로·은퇴장로회연합회 최덕규 수석부회장,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조형국 회장, 서울·서북지역남전도회연합회 조성탄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부회장 이창원 장로와 후원회장 박명웅 장로가 내빈을 소개했으며, 공동회장 안영철 장로의 광고 후 북방선교회장 이용철 목사가 축도했다. 폐회 및 감사기도는 운영위원 박우택 장로가 맡았다.



정상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며 “이 위대한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센병이 정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봉사상 수상자 좌측부터 정기호 장로, 최정기 장로, 정상권 회장, 배원식 장로

이어 제25회 국제IDEA 봉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선교부문 봉사상은 정기호 장로와 최정기 장로가, 감사패는 이해중 장로와 배원식 장로가 각각 받았다.

한편, 이날 선교보고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사회부 후원으로 진행된 필리핀 2개 지역과 국내 한센마을 4개 교회 지원사업, 선교지 2개 교회 헌당식, 네팔·필리핀 한센인 경제자립 지원사업 등 올해 사역 전반이 공유됐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가을맞이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채롭게 진행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올가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야외활동을 진행했다.

■ 추석 비누 만들기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추석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누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비누 반죽을 직접 주물러 형태를 완성하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송편 모양, 화과자 모양 등 개성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손으로 반죽을 빚고 다듬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손 근육 운동 효과를 제공했으며, 색을 조합하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 표현의 즐거움도 더했다.

완성된 비누는 예쁘게 포장해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명절의 분위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 청원생명축제 나들이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청주시에서 개최된 ‘청원생명축제’에 참여를 희망한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청원생명축제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어 축제장 곳곳이 활기로 가득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농·특산물 전시관과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관람했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전시를 보며 즐겁게 지냈다.

또한 축제장 내 식품 판매 부스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먹거리와 간식을 직접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외출이었다.”라며 환하게 웃었고,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활력을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가을 야외나들이: 청주 문암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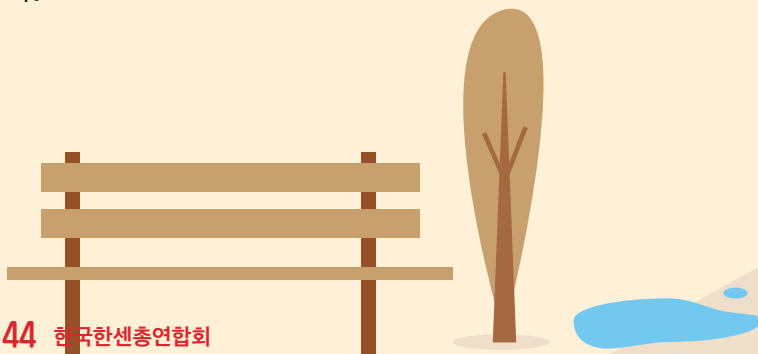


10월 15일 3층 와상어르신들과 함께 청주 문암생태공원으로 가을 야외나들이를 다녀왔다. 며칠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나들이 당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찾아와 외출을 즐기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직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1:1로 동행하며 휠체어 이동을 돕고,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함께 걸었다. 어르신들은 길가에 만개한 가을꽃들을 감상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고,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인근 중식당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함께 나누며 점심식사를 진행했다. 오랜만의 외출에 밝아진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번 가을 야외나들이는 청명한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가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하루가 되었다.



■ 가을 야외나들이: 대천해수욕장



10월 21일에는 1층과 2층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야외나들이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센터를 출발해 맑고 포근한 가을 하늘 아래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했다.

도착 후 인근 식당에서 알탕으로 점심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를 즐겼다. 오랜만의 외출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으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소소한 즐거움이 이어졌다.

돌아오는 길에는 건어물 판매점을 방문해 쇼핑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이 직접 건어물을 고르고 직원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야외나들이는 좋은 날씨 속에서 여유롭게 진행되며 어르신들에게 작은 활력과 따뜻한 웃음을 전해드린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송정하 센터장은 “이번 가을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따뜻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립소록도병원,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으로 환자들과 따뜻한 정 나눠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직무대리 박종억)은 풍요로운 한가위와 수확의 계절을 맞아 환자들의 생활 활력과 체력 증진을 높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3일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1부)과 오후(2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마을 대항전으로 생활 병동 간 대항하는 단체전 게임(윷놀이, 공기주머니 던지기, 고리 던지기, 미니볼링 등)이 펼쳐졌으며, 2부에서는 개인전 형식의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병원의 재원 환자 중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자 모두가 따뜻한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감동의 시간을 나누었다.

박종억 병원장 직무대리는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은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으며, 다양한 경품 행사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을 기약했다.



▲ 옷놀이



▲ 오자미 던지기



▲ 고리 던지기



▲ 장기

▣ 노래자랑



▣ 100세 생신 잔치



▣ 경품 추첨



▣ 개회사



▲ 박종익 병원장직무대리



가버린 세월

가을 하늘 달 밝은 밤에
마당 마루에 홀로 앉아
귀뚜라미 슬피 우는 밤은 깊어만 가는데
가버린 지난날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네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많은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지만
가슴에 감춘 채 표현하지 않으며
추억만을 그리며 살아가는데
나만이 괴로워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나

가버린 세월 많이 먹어야 할 20대 나이
만족하지 못했던 지난날들
한길만 생을 위해 살아왔던 삶
이제 와 돌아보니 후회만 남아있네

말없이 가버린 세월 너무 안타까워
가슴만 애타우며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나무에 걸려있는 달 내 마음 위로하듯
부드러운 밝은 빛으로 포근히 안아주네

팔순, 추억 일기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팔십의 언덕에 서니 꿈결 같은 현실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이 새삼스레 느껴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

십 대의 어린 나이에 몹쓸 병을 얻어 방황하다가 사슴섬에 들어갔다. 투병 생활 속에서도 암울한 청춘의 신음 속에서 코피를 흘리며 공부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 연락선도 닿지 않던 선창가에서 그리움에 서러워 눈물 흘리던 6년의 세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꽃피운 ‘사랑의 용기’가 나를 지켜주고 세워준 것 같다.

그즈음 뜻밖의 일이 생겼다. 입대 통지를 받은 것이다. 병력을 이야기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논산 훈련소로 갔다. 신체 검사장에서 병력을 말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갑종 합격 판정을 받고 훈련을 마친 뒤 광주 육군기갑학교에서 4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이후 강원도 인제의 탱크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했다.

제대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방황의 시절을 보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지게 품을 팔고, 서울역 근처에서는 노점상도 해보았으나 신통치 않았다. 결국 장사를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왔다. 일자리가 없던 시절이라 막막했지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출판사에 취직해 영업 관리 업무를 맡았다. 약 10년간 일하면서 바쁜 중에도 교회 생활은 꾸준히 이어갔고, 그 덕분에 성결교 대전지방 청년연합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의 편견으로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암담했던 현실을 생각하며 선후배 동기들을 찾아 ‘전국정착기독청년연합회(가칭)’ 설립을 간청하여 협조를 얻었고, 대전 동산성결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7개 교회 35명이 참석했던 첫 모임은 해를 거듭하며 점점 성장하였고, 2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에 흐뭇하고 보람을 느꼈다.



그때의 열정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젊은 날의 추억으로 남아 지금 생각을 해도 가슴이 뒹다.

세월이 흘러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12회 때 그기능을 상실하여 막을 내린 것 같다.

삼십 대 초중반,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에 사슴섬 은사이신 故 김광동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다. “축산을 하면 돈도 벌고 교회 봉사도 함께할 수 있다.”라며 도와달라고 권유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이듬해 사표를 내고 충광마을에 입주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형제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80’이라는 숫자가 내 곁에 다가와 나를 서글프게 한다.

이제는 종착역이 멀지 않음을 느끼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먼저 손 내밀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한다. 아직 못다 한 인연들을 만나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 함께 늙어가는 우리 모두의 꿈과 바람이 아닐지 생각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日暮途遠(일모도원,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이란 사자성어로 마무리하고 싶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듯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수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한여름 밤 맥주 한 잔이 부른 급성 통증



황지원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 전문 진료분야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혈관염, 통풍

글. 경희의료원보 편집실 사진. 안용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2025년
여름호 VOL. 454 中]



무더위에 지친 하루 끝, 시원한 맥주 한잔은 작은 위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한 잔이 다음 날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통풍 발작’의 시작일 수 있다.

황지원 교수는 여름철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맥주’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름밤 맥주 한 잔, 왜 위험한가요?

통풍은 체내 퓨린 대사의 마지막 산물인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져 관절 부위에 결정체가 형성이 되고, 이 결정체가 면역세포에 의하여 ‘이물질’로 인식이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부종, 발적, 열감 등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엔 땀 배출로 인해 수분 손실이 일어나 혈중 요산 농도가 쉽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퓨린이 풍부한 효모와 맥아 성분 그리고 요산 배설을 억제하는 알코올이 더해지면 통풍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와 함께 곁들이는 안주도 문제로, 곱창, 간 등 내장류와 육류, 새우와 조개류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혈중 요산 농도 수치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제로(Zero) 맥주는 안전할까요?

최근엔 알코올 함량을 줄이거나 없앤 제로 맥주, 당을 줄인 저당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통풍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제로 맥주에도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감미료나 과당이 들어 있는 경우 요산 생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만 믿고 과음하거나 퓨린 함량이 높은 안주와 함께 즐기면 통풍 발작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키나 보드카 처럼 퓨린의 함량이 낮은 증류주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종을 불문하고 과음은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나 과일주스 역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로’ 표시의 여부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요산 대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은 대사질환의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이 시작됐다면 가벼이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통풍 환자가 증가하나요?

통풍 발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 하나만으론 설명하기 어렵지만, 식단과 생활 패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년 남성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통풍이 30~40대 젊은 남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젊은 성인의 생활습관병’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풍 예방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 과식, 과당을 피하라’입니다. 현대인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식의 원칙’만큼은 지키셨으면 합니다. 수분은 요산의 배출을 돕고, 결정 형성을 억제해 통증 발작을 줄여줍니다. 또한, 모든 음식에는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통풍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습관 Tip

증상

- ① 밤 혹은 새벽에 갑작스레 한쪽 관절(주로 엄지발가락)이 붓고 극심한 통증, 열감과 발적 증상이 있다.
- ② 통증이 수일 내 점점 심해지고,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기도 하다.

주의사항

■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 전에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저질환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급성 통풍 발작 시 혈액검사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낮게 나와 오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Quiz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뇌건강을 위한 일상 상식 문제를 풀어보세요!

- 몸이 아플 때 찾는 곳은?
① 병원 ② 경찰서
③ 공항 ④ 주민센터

- 세탁할 수 없는 것은?
① 바지 ② 양말
③ 열쇠 ④ 티셔츠

- 음식의 재료를 사기 위해 가는 곳은?
① 치매센터 ② 마트
③ 한국한센총연합회 ④ 병원

- 불이 났을 때 전화해야하는 번호는?
① 112 ② 113
③ 129 ④ 119

- 뜨거운 물에 손이 데였을 때 하는 것은?
① 차가운 물에 손을 식힌다.
② 계속 하던 일을 한다.
③ 된장을 바른다.
④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지 말고 참는다.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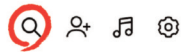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임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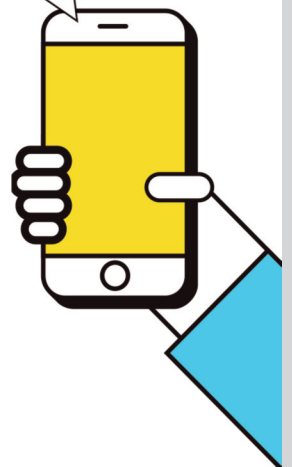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운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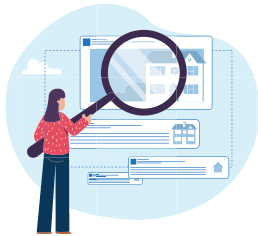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